벼랑 끝 광주FC, "활로를 뚫어라"

광주FC 헤이스(왼쪽)와 엄원상이 지난 5월30일 열린 K리그1 19라운드 포항과의 원정경기에서 슛을 날리고 있다. 〈광주FC 제공〉

오는 3일 안방서 '난적' 포항과 맞대결

정신력 재무장 '위기를 기회로'…필승 총력전 다짐
창단 11주년 기념 '레트로 데이', 다양한 팬 서비스

'아차'하니 최하위다.

벼랑 끝 광주FC가 포항스틸러스전을 앞두고 총력전을 다짐했다.

광주는 오는 3일 오후 4시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과 하나원큐 K리그1 2021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라운드 울산 현대 원정 경기를 떠난 광주는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윤평국의 PK선방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4분 이동준에게 실점하며 아쉬운 0대1 패를 기록했다.

시즌이 끝나가는 상황.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도 신경을 써야하는 광주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서울, 성남, 강원 등 경쟁 팀들의 승리 소식까지 이어지며 패배의 아픔을 곱씹어야 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희망을 놓쳐선 안된다.

비록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수원, 제주, 전북, 울산 등 리그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구단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투혼을 보여준 모습은 고무적이다.

광주는 승리를 향한 갈망과 절실함을 안고 포항전에 나선다.

최근 5경기 3골로 맹활약 중인 김주공을 비롯해 엄원상-엄지성-허율 등 광탄소년단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전북전 실수를 딛고 울산 원정에서 PK선방을 포함해 6개의 슈퍼세이브를 보여준 수문장 윤평국과 부상에서 복귀해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두현석까지 더해지는 등 선수단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포항은 광주가 K리그 21개 팀 중 유일하게 넘어서지 못한 팀이다. 이승모, 신진호, 임상협, 강상우 등 수준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0대1 석패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항은 주전 골키퍼 강현무의 부상여파로 골문 앞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최근 3연패로 주춤하고 있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으로 상대 약점을 파고 들어 포항전 첫 승을 노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는 팬들과의 추억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전을 '레트로 데이'로 개최, 선수단이 창단 유니폼을 재해석한 뉴트로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도록 했다.

팬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2번 게이트 입구(E석 매표소)에서 는 역대 유니폼을 전시하고, 창단 11주년을 기념해 선착순 111명(성인 66명, 청소년 50명)에게 역대 유니폼(랜덤)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풋볼링 장외행사를 통해 2021 사인볼과 옥스퍼드 블록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박희중 기자

30일 신안 비금초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스포츠버스 행사에서 학생들이 올림픽 장비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 신안 비금초를 가다

다양한 체험·작은 운동회 꿈도 키우고 추억도 쌓고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가 신안 비금초를 찾았다.

전남도체육회는 30일 "대한체육회 '2021 스포츠버스(학교 방문)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신안 비금초에서 다양한 스포츠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는 30일 전교생 72명의 미니 학교인 신안 비금초에서 작은 운동회를 개최하고, 스포츠버스 내·외부 체험존을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금초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버스 내·외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체육관'과 어린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작은 운동회' 등이 열려 큰 즐거움을 안겼다.

특히 스포츠버스 내부의 VR 체험존, Wii Play존, 건강 측정존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작은 운동회'에서는 단합 응원전, 특급열차, 단합 훌라후프 탈출, 슈퍼볼 릴레이, 버블 슈트 서바이벌, 계주 릴레이 달리기 등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다.

류을석 비금초 교장은 "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농어촌 학교에 스포츠버스 행사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스포츠버스 행사를 통해 꿈을 안고 달리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뿌듯하고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한체육회와 전남체육회 관계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황부영(비금초 3학년) 학생은 "TV에서나 보던 올림픽 선수들 장비도 입어보고, 처음 보는 기구를 가지고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며 즐거워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8월 2021 스포츠버스 사업 공모에서 전국 25개교 중 3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달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버스가 완도 금일중, 구례 중동초를 각각 찾아갈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코스레코드 한번 더?

LPGA 투어 숍라이트 LPGA 클래식 출전 김세영, "쇼트게임 연습 많이 해"

김세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 LPGA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서 코스레코드 영광 재현을 노린다.

김세영은 2일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돌체 호텔 시뷰 베이코스(파71)에서 열리는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 출전한다.

김세영은 2018년 이 대회 2라운드에서 10언더파 61타를 쳐 18홀 최저타 기록을 세웠다.

김세영은 "이 코스는 그린이 쉽지 않아서 퍼팅을 잘해야 한다. 그린을 넘겼을 때는 난도가 높아서 공략도를 잘 체크해 좋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하게 플레이하고 샷도 잘 돼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은 8월 AIG 여자오픈 이후 한 달여 휴식한 뒤 지난주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 이어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 2주 연속 출전한다.

김세영은 휴식기에 한국에서 쉬는 시간을 보냈다며 "피곤한 상태여서 몸 관리를 하고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휴식기에도 쇼트 게임 연습을 놓지 않았다며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쉬는 기간에도 쇼트 게임은 굉장히 집중해서 연습했다"고 말했다.

김세영은 "이번 주는 샷, 쇼트 게임, 퍼팅 모두 다 중요하다"며 "한국에서 연습했던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대회에는 김세영을 비롯해 박인비(33), 고진영(26), 김효주(26) 등 2020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MLB 휴스턴 애스트로스 대 탬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에서 탬파베이의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 최지만이 5회 초 시즌 11호 홈런을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최지만, ML 통산 50호 홈런 '쾅'

추신수 이어 한국 선수 두 번째

탬파베이 레이스 최지만(30)이 보름만에 홈런포를 작렬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최지만은 3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원정경기에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11호 홈런을 기록했다.

최지만이 홈런을 날린 건 15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원정경기 이후 15일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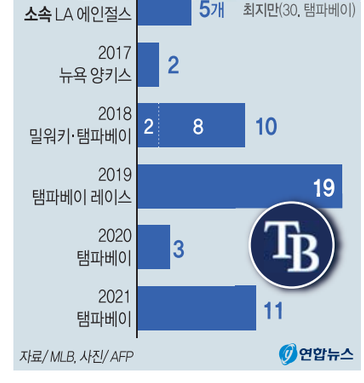
최지만은 이날 홈런으로 추신수(SSG 랜더스)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MLB 50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지난해까지 218개 홈런을 친 뒤 KBO리그로 이적했다.

3위 기록은 강정호(46개·은퇴), 4위 기록은 최희섭 KIA 타이거즈 코치(40개)가 갖고 있다.

2016년 MLB에 데뷔한 최지만은 그해 5개, 2017년 2개, 2018년 10개의 홈런을 날렸다.

2019년엔 데뷔 후 최다인 19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60경기 단축 시즌으로 치른 지난해엔 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챔피언스투어 우승, 19년전 PGA 첫 승과 똑같은 감동"

최경주, "한국의 긍지·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한국 남자 골프의 역사를 써 온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최경주(51)가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로 여기까지 왔다며, 더 많은 것을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경주는 30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2002년 PGA 투어 첫 우승과 이번 챔피언스투어 첫 우승 때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감동했다"고 여전한 기쁨을 표현했다.

최경주가 '천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산전수전 겪은 노장들이 모인 챔피언스투어엔 정규 투어와는 조금은 다른 여유와 정감이 느껴지지만, 승부는 정규 투어와 다름없이 치열하다.

최경주는 "챔피언스투어라고 해서 '탱자탱자' 놀고먹듯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 두 경기 정도 해보니 이기려면 진짜 준비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재정비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처음 PGA 투어에 뛰어들 때도 그랬지만, 챔피언스투어에서도 최경주는 한국과 아시아 선수의 상징적인 존재다. 그 자부심이 '탱크'를 움직이는 힘이다.

최경주는 "여태껏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해왔다. 여기서도 '온리 원 코리안'이고, 통차이 자이디(태국)가 월요 예선을 통과해 출전하지 않고선 동양인도 저 혼자다"라며 "대표하는 선수로서 본분이 있고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마음을 다잡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챔피언스투어를 열심히 하면서 매년 1승씩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일단 첫 승을 올렸다. 더 몸을 잘 만들어서 잘 생활하면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2승도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최경주가 30일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를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KPGA 제공〉